

우리를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는 제자로 부르셨다. 그들을 더 구체적으로 70인 제자라고 부른다. 70인 제자는 산업에서 증인으로 살고, 참된 성공자로 살고, 그 증거를 가지고 내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다. **하나님은 왜 모든 것을 증거로 바꾸어주셔야 하는가? 남은 자이기 때문이다.** 하나님이 구별해놓았고, 모든 문체와 환경에서 남은 자, 남을 자, 남기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. 결국 우리를 통해 또다른 제자가 남는 것이다. **하나님은 왜 제자들을 참된 성공자로 축복하셔야 하는가? 그래야 흑암에 덮히고 무너지는 세상을 살리고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.** 거의 모든 신자가 세상에 빠지고, 거기서 실패하고, 짓눌려 살지 않는가?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릴 구원한 이유가 아니지 않는가? 그래서 지난 주에 하나님이 준비한 세가지 성공의 언약을 잡으라고 했다. **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증인으로 살다 갔다는 것이다.** 그들의 절대 다수가 평신도 제자들이었다. 환경, 현실, 핍박, 억울한 일, 무엇도 상관이었다. 38절에 “그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”고 했다. 요셉처럼 가장 비천한 신분인 노예로 있어도 상관이었다. 모든 문제가 결국 왕 앞에 서는 기회가 되었다. 엘리야 시대의 오바다 같은 사람도 있다. 우상 숭배하는 왕도 중요하게 쓸 수 밖에 없는 사람이었다. 초대 교회의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은 대부분 평범한 일을 한 사람들이었다. 가족 세공업자인 시몬, 옷감을 파는 루디아, 천막을 만들어 파는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다. 이들이 초강대국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이 된 것이다.

**1. 이들이 그렇게 살 수 밖에 없었던 비밀이 무엇인가?**

**1) 그들에게는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라는 절대 해답을 가지고 있었다.**

실제로 자기 문제에서 체험한 것이다. 내 개인의 문제(약점, 상처, 갈등)가 요19:30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다. 내 안에서 이 결론이 안 나니까 사단은 계속 같은 문제로 나를 공격하고 속이는 것이다. 각인(생각과 판단의 기준), 뿌리(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), 체질(그것이 내 인격이 되고 삶이 된 것)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. 문제가 와도 문제로 안 느껴지고, 오히려 축복과 응답이 보이는 것이다.

**2) 언제 이 절대 해답이 내 안에 각인, 뿌리, 체질이 될까? 그 해답을 붙잡고 기도할 때이다.**

기도할 때 언약이, 붙잡은 메시지가 내 영혼 속에, 마음과 생각 속에, 내 깊은 곳에 자리를 잡는 것이다.

**3)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내 안에 성상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.**

내 안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역사한다. 천사가 동원되고, 흑암이 깨지는 것이다.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한다.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능력으로 내게 오는 것이다. 뭘 해도 내 힘이 아닌 그 분의 힘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다(오력). 그러면서 아버지가 준비한 중요한 응답과 축복이 오는 것이다.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천군 천사가 나를 돕고, 힘을 얻고, 응답을 받으니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다.

**2. 어떤 기도를 누려야 하는가? 적어도 세가지를 뛰어넘는 기도를 누려야 한다(기도 정복)**

여기서 모든 성도와 특히 70인 제자들이 누려야 하는 순례자의 여정이 나오는 것이다.

**1) 나를 뛰어넘는 기도를 하라. 이 축복이 순례자의 길의 시작이다.**

**①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받은 순간 나를 “새로운 피조물”이라고 하셨다(고후5:17)**

외모나 성격이 당장 아무 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시는가? 내 영혼이 거듭나면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것이다(창1:27). 내 영혼이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다(창2:17).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(창2:1-18의 에덴) 에덴의 축복이 누구 때문이 아니다. 환경도 아니었다. 아담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것이다.

**② 내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기도를 하라.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약점, 무능, 상처, 한계에 머물러 있다.**

“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, 새 사람을 입으라”고 하며 실례까지 들어주었다(엡4:22-30) 내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나 이것은 지속해야 하는 진행형이다. 내 안에 새로운 각인과 뿌리와 습관이 만들어질 때까지이다. 호흡 하듯이 기도하라는 것이다. 내 안의 버릴 것을 뱉어내고(날숨), 하나님 능력을 마시듯이(들숨) 하면 된다.

**③ 뭘 바꾸려고 애쓴 것이 아니다. 언약을 붙잡은 기도 속에 있는 데, 성상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.**

내 안의 약점과 상처까지도 전부 증거가 된다(연단의 증거, 발판의 증거, 모든 것 수용하는 그릇이 된 증거)

**2) 현장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라. 이 축복이 순례자가 가는 여정이다.**

제자가,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장을 만난다. 피할 수가 없다.

**① 내가 공부하고, 일하고, 만나야 하는 모든 사람이 어려움 가득한 현장이다.**

모든 것이 쉽고, 나를 축복하는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다. 본문처럼 억울한 일 당하고, 누명을 쓸 수도 있다.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일어난다. 중직자가 되고, 중요한 자리에 갈수록 더할 수 있다(엡6:12).

**②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계속 하라. 천사가 동원되어 지키시고, 흐름이 바뀌어진다.**

두 세사람이 팀이 되어 함께 하면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(마18:19-20) 이때 3초월의 역사(보좌의 축복, 시공간 초월, 237 살리는 빛의 능력)가 일어나는 것이다

**3) 미래를 뛰어넘는 기도를 하라. 이 축복이 순례자의 영적 세계이다.**

교회가 무너지고,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, 후대까지 무너지고 있다. 그러나 우리는 다른 세계를 사는 것이다.

**① 나만의 시간, 조용한 시간,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서 기다리면 된다.**

답답한 것을 억지로 참는 기다림이 아니고, 미래를 알고 결론을 알고 있는 행복한 기다림이 된다. 40절에 그들은 당장 무엇이 성취되지 않아도 반드시 올 “하나님이 준비한 더 좋은 것”을 기다렸다고 했다.

**② 자연스럽게 오직, 유일성,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.**

오직은 나 혼자 있어도 행복하다는 것이다. 하나님이 나의 오직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.

유일성은 작은 일을 해도 작품이 되는 것이다.

재창조는 나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고 또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증거가 오는 것이다(플랫폼, 파수망대, 안테나).

**③ 이때부터 237을 위해 도전할 것이 보인다(그것이 미리 보고, 미리 누리고, 미리 체험하는 CVDIP)**

기도 속에서 꿈을 꾸는데,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, 전후후무한 역사를 만드신다(행19:21, 23:11, 26:24)

**결론-기도로 정복하라. 기도를 정복하라. 하나님은 나와 현장과 세계를 바꾸는 천지 개벽을 이루실 것이다.**